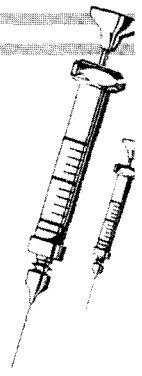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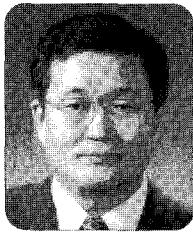


돼지오제스키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제언



1. 돼지오제스키병의 경제적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자.



최 홍 렬 사무국장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돼지오제스키병이 처음 발생한 농장의 새끼돼지는 구토, 설사, 신경 증상(벌벌떨고, 뒷걸음치거나 빙빙돈다)을 나타낸 후 거의 다 죽고, 임신 모돈에서는 재발정, 사산, 유산, 허약자돈 분만 등 심각한 번식장애를 나타내며, 비육돼지와 큰 돼지는 열이 나고 며칠간 식욕이 떨어지며 기침을 하는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회복되지만, 신경증상을 보이는 개체는 죽게 된다.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한지 수개월이 지난 농장에서는, 농장내 대부분의 돼지가 감염된 후 회복되었으므로 몸 속에 항체를 갖게 되어 임신모돈의 번식장애 소견이 거의 없어지며, 새끼돼지 역시 어미젖으로부터 이행항체를 받기 때문에 치사율이 현저하게 줄게 되거나 거의 없어진다. 그러기에 발생농가에서는 이 병의 피해가 별로 없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어 근절이 안되고 있다. 그러나 모체이행 항체가 없어질 때쯤의 비육초기 돼지는 감염되어 성장이 부진하게 되고, 호흡기 질병이 많아 위축돈이 되어 많은 경제적 손실을 주며, 증상이 없던 어미돼지가 임신·분만 등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유사산·재발정을 나타낼 수 있다. 임상증상을 나타낼 경우의 폐사율을 보면, 2주령 이하의 새끼 돼지는 100% 폐사하고 3~4주령은 약50%, 4~6개월령은 5%정도가 폐사하지만, 성돈의 폐사율은 2% 이내이고 모돈의 유사산율은 약 50% 정도라고 보고되었다.

오제스키병이 급성으로 발병한 농장에서 만성적으로 진행할 경우의 경제적 피해를 보면, 산자수는 평균 3% 감소되고, 연간 모돈당 이유자돈수가 1~1.5두 감소하며, 사료요구율이 0.2% 증가(사료비 7%증가), 위축돈 발생증가, 출하일령 7~10일이상 지연, 면역력 저하로 인해 호

〈표1〉 년도별 돼지오제스키병 발생동향

연 도	'95	'96	'97	'98	'99	2000	2001
발생건수	54	30	33	10	68	221	720
발생두수	2,016	1,399	940	122	2,288	7,162	10,389

〈표2〉 '01년 돼지오제스키병 발생지역 채혈·검사조치 결과

('02.3.8 현재)

장 소	기 간	채 혈 두 수	검 사 결 과	조 치 결 과
전북 익산 왕궁단지	'01.4.25 ~5.10	327농가 8,949두	○194농가 3,446두 양성	도태계획 : 5,981두 도태완료 : 5,745두
	'01.10.8 ~10.19	324농가 8,550두	○157농가 1,579두 양성	잔류두수 : 236두 예방접종 : 197농가 30,411두
경기 용인	'01.9.14 ~10.24	161농가 8,744두	○46농가 862두 양성	양성발생농장:총86호 청정농장 인정:24호 농장폐업:12호 관리대상농장:50호
	11.29 ~12.6	35농가 6,547두	○16농가 267두 양성	도태실적:1,329두 완료 양성잔류:1농가 8두
강원 철원	'01.10.16 ~10.18	4농가 1,545두	○1농가 1두 양성	도태:1두 3월중 확인검사 계획
경기 안성	'01.10.23 ~12.4	85농가 5,209두	○안성 16농가 양성판정 ○이천·광주 각 1농가 양성판정 ○이천 13농가 488두 전두수 음성 ○광주 4농가 155두 전두수 음성	모든 863두 도태완료
	'02.1.14 ~1.17	14두 2,346두	○안성 일족 10농가 151두 양성	현재 양성모든 잔류:1농가 50두
전북 부안 (1개농장)	'01.11.27 (1일간)	1농가 62두	○53두 양성 ○12월 6일 449두 살처분 ○정읍 : 12월 5일 715두 살처분 ○전남 함평 월야 : 57두 채혈, 전두수 음성(12월 4일)	발생농가 1,164두 살처분('01.12.6)
전북 완주	'02.2.16 ~2.22	모든 88, 웅돈 8, 육성돈 51, 자돈 19	○2.16:12두중 모든 2두 양성 ○2.19:50두중 38두 양성 ○2.22:자돈 19두중 16두 양성 ○주변농가 6호 50두:전두수 음성	발생농가 963두 살처분('02.2.28)

흡기질병 증가에 따른 방역비용 증가, 특히 모든 불임이 문제되어 회복돈군 모든의 20% 정도가 다음 산차에서 수태가 되지 않는 등 돼지오제스키병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양돈농가 모두가 이제는 제대로 인식해야 하겠다.

오제스키병 발생시 1년간 모든 1두당 피해에 관한 각국별 보고자료를 보면 미국 321달러, 영국 233달러, 덴마크145달러, 한국 약 100

만원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표된 자료도 있다.

2. 최근 발생동향

최근 7년 동안의 농림부의 돼지오제스키병 발생통계를 <표1> 보면, 돼지오제스키병이 '99년부터 매년 발생두수가 급증되어 계속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오제스키병의 발생



▲돼지오제스키 감염의심축 살처분

통계는 발생농장에 3개월 간격으로 2회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중복 계상되다. 또한 2000년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경기·충남지역을 대상으로 돼지오제스키병 채혈검사를 대폭 확대한 결과가 반영되었으며, 2001년에는 오제스키병 농장채혈을 연간 30만두로 확대 실시하여 비발생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양성축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인근지역을 2차 3차 집중 검사한 결과에 따라 발생두수가 중복집계된 결과로 본다. 방역본부가 돼지오제스키병 조기근절을 목표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오제스키병 발생지역으로 확인된 익산, 용인, 철원, 안성, 부안, 완주지역의 채혈검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은 <표2>와 같다.

3. 예방 및 방역대책

발병후 회복된 개체는 병원체가 잠복감염된 것이므로 조기에 도태·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기 때문에 농장내 사육돼지에 퍼지게되고, 결국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어 떨어지게되며, 값이 좀 싸다는 이유로 이를 매입한 농장은 또다시 감염농장이 되어 전파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오제스키병이 발생된 농장에서 겨울철에 자돈설사병(TGE, PED)으로 오인하여 예방목적으로 인공감염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발병농장과 인근에 있는 농장간에는 쥐, 개, 고양이 등의 왕래를 막아야하고, 공기전파와 차량(가축수송, 분뇨수거 등) 출입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으며, 인공수정시 감염된 웅돈의 정액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현재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에 허용하고 있는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예방접종 돼지는 감염된 후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예방접종 안된 돼지에 비해 병원체 바이러스를 소량 배출하므로 전파속도를 줄이고 경제적 피해도 줄일 수 있으나, 오제스키병 감염자체를 막아내는 것은 아니다. 잠복 감염된 개체는 사육중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다시 병원체를 배출하게 되어 농장에 이병을 퍼뜨리는 감염매개체 역할을 하게되므로, 항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잠복감염개체는 조기에 도태시키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예방접종의 요령은 농장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종하는게 좋다.

○오제스키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목

〈표3〉 2002년 오제스키병 채혈검사 계획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HC+AD	31,740	5,520	5,980	19,780	13,570	11,730	14,950	14,950	4,370	122,590
모든채혈	38,750	7,180	11,920	27,750	20,030	22,470	23,650	24,950	1,030	177,730
계	70,490	12,700	17,900	47,530	33,600	34,200	38,600	39,900	5,400	300,320

적으로 접종할 농장 :

자돈은 생후 3~7주에 1차 접종하고, 접종 3주후에 2차 접종하며, 성돈은 매4~6개월 간격으로 접종한다.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농장 :

자돈은 생후 10~20주에 1차 접종하고, 3주후에 2차 접종하며, 성돈은 매4~6개월 간격으로 접종한다.

○오제스키병이 현재 발생되어 자돈폐사 등 피해가 있는 농장 :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는 즉시 살처분·매몰해야하고, 3주령 이상의 모든 돼지에 2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방역본부에서는 금년 돼지오제스키병 채혈 검사는 30만두가 목표이며, 이중 12만2천590두는 비육돈 위주로 채혈하여 돼지콜레라와 오제스키병을 동시에 검사토록하고, 전국 각시·도의 모든·종돈사육 농장을 채혈대상으로 확대하여 4개월마다 1회씩 채혈, 17만7천410두를 검사토록하여 합계 30만두의 감염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4. 양돈농가에 대한 제언

돼지오제스키병이 '87년 최초 발생 이후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병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인식치 못하는 농가가 있어 각 지역에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의 양돈경영은 눈앞에 보이는 피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을 우선 없애고 건강하고 청결한 돼지를 사육해야만 사육비를 절감하면서 우수한 규격돈을 출하할 수 있는 수지맞는 양돈장을 경영해갈 수 있다.

오제스키병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양돈농가가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제언한다.

○떨이돼지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한다. 떨이농가의 돼지를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집상에게서 돼지를 구입하는 농가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 돼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검사증명서 확인 등으로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돈장에서만 구입하도록 해야하며, 운반차량이나 취급하는 사람도 철저히 소독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구입한 돼지는 약 2주일 동안 농장과 격리된 장소에서 건강상태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른 돼지와 합사시켜야 한다.

○농장출입차량(도축장 출입, 분노수거, 사료운반, 약품수송 등) 및 농장방문객(특히 수집상, 타농장 관리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하며, 양돈장 주인이나 관리자도 돈방간 이동이나 외부출입시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야겠고, 인근 양축농가에게도 농장 소독관리 양축농가 의무임을 주지시켜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양돈**